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 32년만에 폐지

환경부·전남도 등 8개 기관 협약
도로 매입·건물 리모델리 등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 지원
전국 16개 사찰 폐지 여부 주목

지난 32년간 등산객·자치단체·사찰 간 갈등을 빚었던 지리산 국립공원 내 천은사 입장료가 폐지(성인 1600원) 된다. 이번 천은사 입장료 폐지 결정으로, 설악산 신흥사·속리산 법주사 등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 16개 사찰의 입장료도 폐지 수순을 밟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와 전남도, 문화재청, 한국농어촌

공사,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천은사는 협약식 이후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제861호선)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도 철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입장료 폐지 결정에 따라 천은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도 861호선 도로 일부를 매입하고 천은사 주차장 옆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례군은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과 인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하고 무장에 탐방시설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천은사측에 인근 저수지 ‘천은제’ 주변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천은사 입장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자립 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

람료(입장료)를 받아온 천은사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입장료를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 중 25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중 16곳은 천은사와 같이 매표소가 사찰입구에서도 떨어져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장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 이를 수 있었다”며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도서관 가방 만들기 체험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청 일대에서 광주시립도서관·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19 도서관문화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 가방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도서관과 사랑, 서(書)로 통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공공도서관·독서단체 등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스쿨미투’ 중징계 요구 교사 9명 인권위 진정

“방어권 충분히 보장 안돼”
교육청 감사결과 이의신청도

여제자들을 수행하거나 희롱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 가운데 일부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감사 및 수사의뢰 단계에서 해명 기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 8명, B교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

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대면조사 등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성비위 교사로 지목됐다. 일부는 감사결과와 달리,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9명 가운데 1명에게는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

교 22명, B교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진술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중징계가 타당한 피해 내용도 나왔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서의 경우(징계 요구 받은) 교사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추가 집단 소송 537명 신청

오늘 광주지법에 소장 제출

일본전범 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의 추가 소송이 29일 제기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광주지방법원에 1차 소송인단의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소송 추진 배경과 규모, 대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춘 537명이 신청했다. 시민모임은 가해 기업 특정, 현존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원고를 선정했으며 1차로 이 중 일부 피해자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차 소송 대상 기업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일제 강제징용(남성)·근로정신대(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와의 교섭에도 불응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특허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5:44
해진 19:16
달뜨 02:56
달짐 13:52

하루종일 빗방울

새벽부터 비 시작해 밤에 그치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5~2.5	동~남동	1.5~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5~2.5	남동~남	2.0~3.0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간조	만조
	03:14 16:24	10:07 22:36
여수	12:11 23:59	05:52 18:03

◇ 주간 날씨

30(화)	5/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	☁	☁	☀	☀	☀	☁
14/23	12/21	12/23	11/25	12/26	12/25	13/24

장회국 교육감 청사 이전 국비 지원 요청

광주 찾은 유은혜 부총리에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이 광주를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시교육청 청사 이전,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6일 광주 금남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공간혁신프로젝트 참여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장회국 교육감은 행사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비 880억원과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 예산

300억원 가운데 각각 절반인 440억원, 150억원 등 총 59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 청사 근무 인원은 30년 전 142명이던 것이 현재 412명으로 늘었고, 이로 인해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예산 지원을 설득했다. 시교육청은 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짓지 않았으나 오는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는 학생들이 미래기술과 직업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2022년 완공 목표다. /김형호 기자 khh@

함평나비축제 기간 KTX 함평역 임시 정차

코레일 광주본부는 “함평나비대축제 기간(4월26일~5월6일) 함평역에 KTX를 임시정차한다”고 28일 밝혔다. KTX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함평 나비 대축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함평나비할

증정과 입장권 1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축제와 연계한 열차 관광상품도 운영 중이다. 용산-함평 KTX열차표와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을 함께 구매하면 더 저렴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1588-1543·010-3645-1479